봄철의 장수

3 - MAR - 7
COPY 1961

홍 종호 그림

화살

1960년 7월 상반호 (129)

## 계속 전진!

—허, 북조선의 생산이 떨어지는군

—아!? 이건…

최 영근 그림



송 시엽 그림

## 물고기 방송국에서

최 영근 그림

— 방금 륙지에서 들어 온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산 부문 일'군들은 금년에 중소 세소업과 심해, 원해 어업을 배합하여 동해안에서는 69만 톤, 서해안에서는 계획보다 2만 9천 톤이나 더 증산할 것을 결의했답니다. 모두다 륙지에 오를 준비를 해 주십시요.

## 풀더미는 쌀더미

안 창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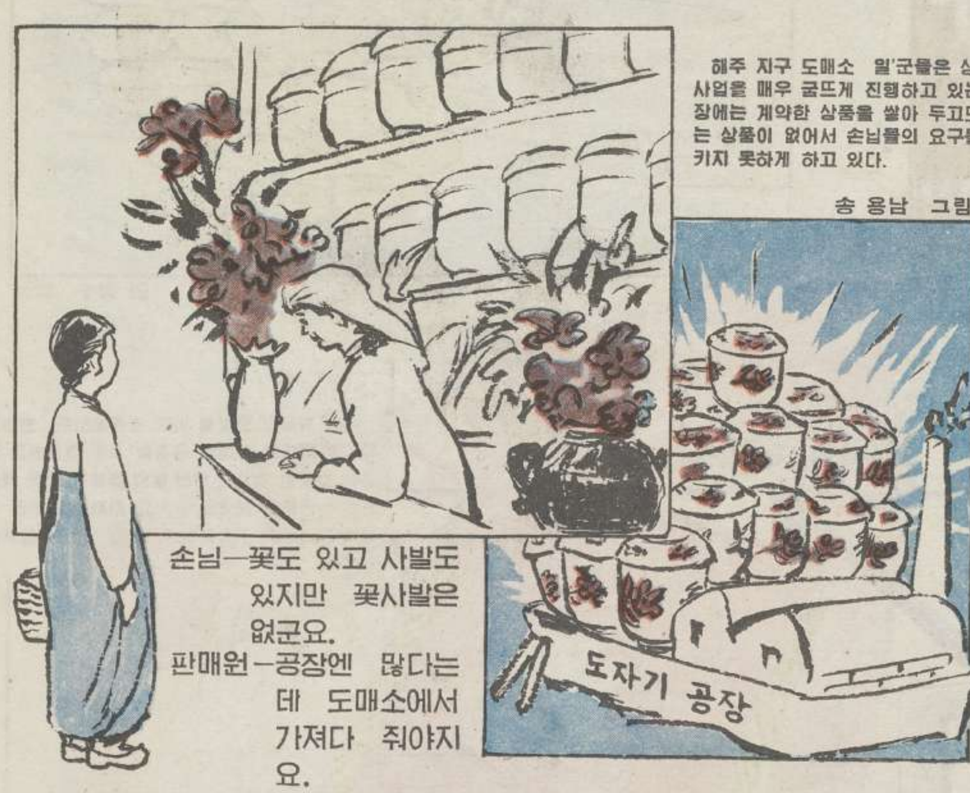
## 애국적 발기

로동 계급의 모범을 따라 농촌에서도 천리마 작업반 칭호의 영예를 쟁취할 것을 결의하고 전국에 호소한 강서군 청산 농업 협동 조합 문 정숙 작업 반원들의 애국적 발기를 지지하여 전국 각지 농업 협동 조합원들은 이에 호응 궐기하였다.

안 창수 그림

개구리 —토끼집이 우리들 집과 같군…

조 명식 그림



해주 지구 도매소 일'군들은 상품 공급 사업을 매우 굼뜨게 진행하고 있는 바 공장에는 계약한 상품을 쌓아 두고도 상점에는 상품이 없어서 손님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송 용남 그림

# 《변절》된 전기?!

5월분 "전력 운영 월보"를 훑어 보고 있던 룡성 기계 공장 지배인의 얼굴에는 연신 미소가 감돈다.

(그렇지! 이번 달에도 전기가 절약됐구만, 작년에는 벌금만 물었지만 올해는 내내 절약이야! 그러나 랑비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 지배인은 공무 동력 부장을 불렀다.

《부장 동무, 이 "전력 운영 월보"가 틀림없소?》

《통계도 사람이 하는 노릇이니까…그러나 틀림 없을 겁니다.》

부장은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 애매하게 대답하고 말았다.

《좋소! 사실 전기가 절약 됐다니 말이지 나도 전기 절약에서 자비할 게 많소.》

지배인의 이 말은 자칭 《기계쟁이》로 간주하고 전기에 대해서는 외면하다 싶이 하는 부장에게 량심의 가책을 받게 하였다.

지배인은 담배를 피워 물면서

《전기 절약의 중요한 고리로서 국가에서는 부하률(평균 전력÷최대 전력×100)을 95% 이상 높이라는데 우린 평균 몇 %나 되오?》

《70%쯤 됩니다.》

《70%?, 부하률이 20.4%까지 내리는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는데 그래도 전기가 절약됐으니 〈재간〉이 좋소?!》

《…………》

부장은 지배인이 자기를 자꾸 떠보는 것 같아서 고만 말문이 막혔다.

《좋소, 이 월보가 지배인을 망신시키지는 않겠지?! 사실 지배인으로서 전기 절약을 위하여 로를 규칙적으로 운영시켜 부화률을 높이게 한다든지, 장입문 개조, 전극의 자동 조절 도입 등 탐구된 11 종의 예비들을 생산에 도입해야 하는데 아직도…》

《지, 지, 지배인 동지! 그것은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기는 절약됐습니다.》

《괴차 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일을 더 잘하자는 거요, 으흐흐…》

《혼 났네, 혼 났어!》

부장은 지배인실을 나오자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이마의 땀을 씻었다.

당장 그날 오후 부장은 부 회의를 가졌는데 여기서 많은 것이 토의되였다.

특히 라 기사는 현장을 지도할 대신에 통계 속에 파묻혀 있었고 전기 설비원은 본신 사업보다 음악 써클에 더 열중했다는 사실들이 심각히 비판되였다. 그리고 지도 간부들과 부장을 비롯한 전기 부문 일'군들의 역할이 미약하였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 부화률이 비료 공장에서는 99.7%까지 오르는데 이 공장에서는 평균 66.5%에 지나지 않았다.

6월 상순 어느날, 지배인은 도 송배전소에서 보낸 "전기 랑비에 대한 벌금 신청서"를 받았다.

《절약됐다는 전기에 벌금이 붙어 왔으니 아다가 모를 일이로군!》

하고 지배인은 신청서를 팽가치듯 책상에 놓았다. 그는 벌금보다도 공무 동력 부장이 "전력 운영 월보"를 두고 자기를 속인 것이 더욱 괘씸했다.

즉시로 지배인은 공무 동력 부장과 라 기사를 불렀다.

《동무네는 〈절약〉과 〈랑비〉의 어휘도 분간 못하오? 절약된 전기에 벌금이 붙어 왔소. 〈변절〉된 전기에서 말이요… 자그만치도 아닌 평양 연초 공장에서 석달 이상 쓸 전력을 금년에 랑비했다는 것이요, 자, 보오!》

하고 지배인은 벌금 통지서를 불쑥 내 밀었다.

벌금 통지서를 눈여겨 보고 난 부장과 라 기사는 얼굴을 붉히면서

《톤 당 생산 전력 국가 소비 기준량을 저희들이 잘못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톤 당 생산에서 전기를 얼마나 쓰라는 국가 소비 기준량도 아직껏 모르는 판이니 ……잘하오?!》

하고 지배인은 사무실 밖으로 휑 나가버렸다.

공무 동력 부장과 라 기사는 꿔 온 보리'자루처럼 한참 동안 멍청히 서 있을 뿐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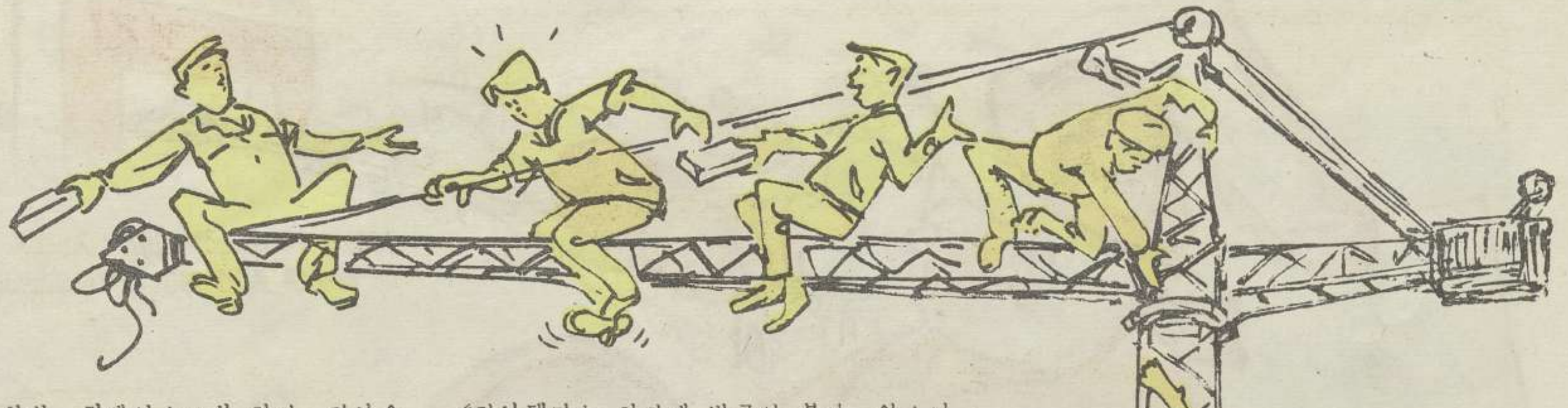
피 호주

## 찌돌이의 《량심》

함남 오로군 전 룡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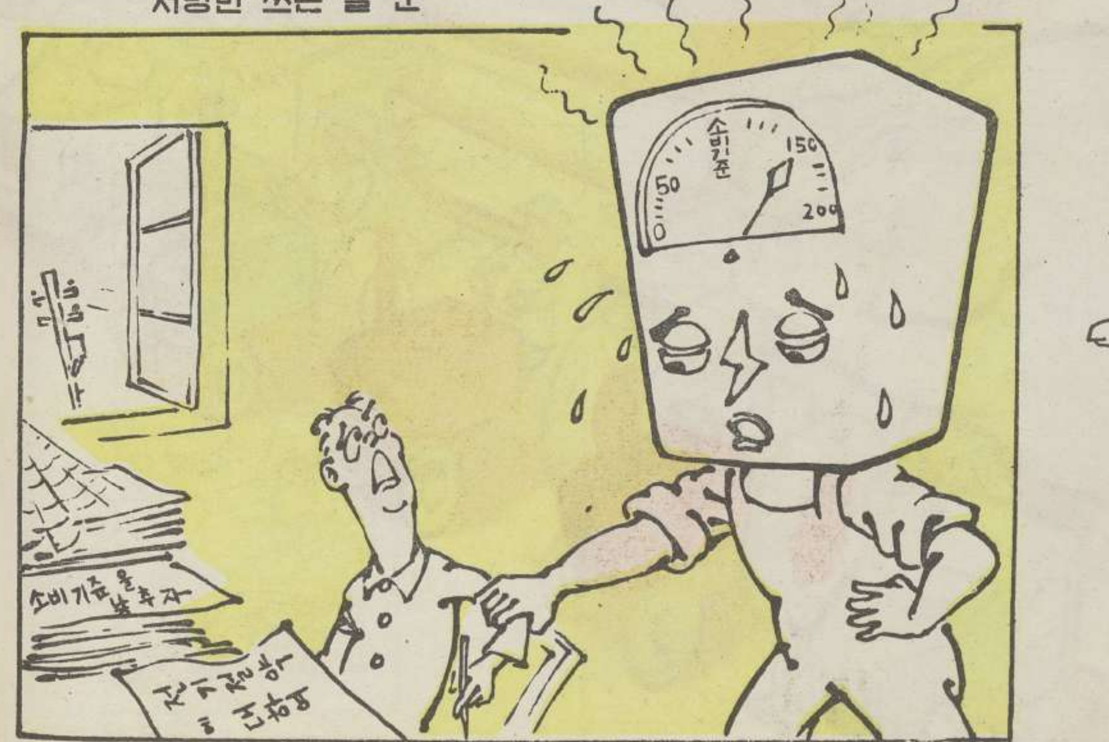
## 리용되였다

송 시엽 그림



원산 건설 트레스트에서는 건설에서 기계화를 적극 도입할 대신에 있는 설비들도 제대로 리용하지 않고 있는데로부터 막대한 로력을 랑비하고 있다.

## 처방만 쓰는 일'군



최 영근 그림

—여보시오, 언제나 저의 열을 낮추어 주겠소…?

# 위대한 변혁

## 열다섯 돐 맞는 우리 나라 농촌

—어떻게 15 년간에 그렇게 자라게 됐습니까?
—이 옳바른 길을 걸어 왔기 때문이지…

홍 종호 그림



미제는 지난 15 년간 남조선 농촌을 계획적으로 황폐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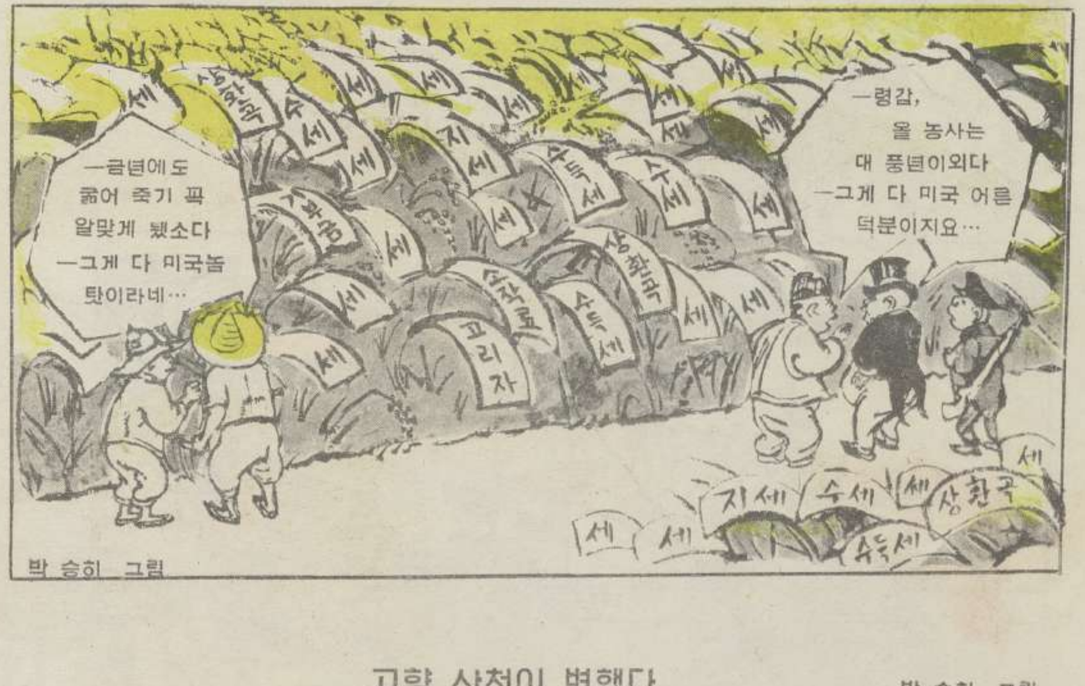
—나의 졸도들이 농촌에서 맹렬히 활동하고 있군·····

박 승히 그림

## 《농지 개혁》의 《성과》

박 승히 그림

## 《풍년》이 《흉년》




박 승히 그림

## 고향 산천이 변했다

박 승히 그림

주인은 참새를 쫓고…

침략자는 주인을 쫓는다

남조선의 춘하추동

농민의 생활 지주의 생활

박 승히 그림

남조선 농민들의 투쟁을 회유 무마하려는 간교한 술책으로 허 정 일당은 《영농 자금》을 방출하겠다고 떠버리면서 작년도의 소위 《미곡 담보 융자액》 150억 환을 농민들에게 회수할 것을 획책하고 있다.

—한푼 줄터이니 이것을 채워 주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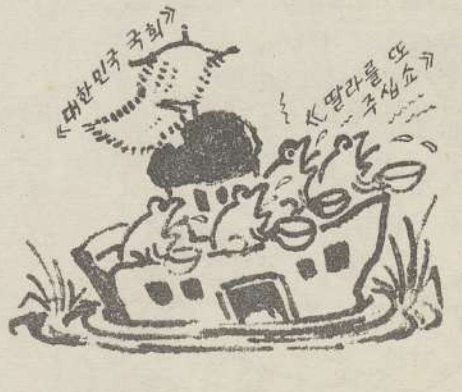
# 각서리 패의 《장타령》

서 창훈

도적을 겸하고 동냥으로 치부하며 거지를 직업으로 삼는 자들의 집단 《대한 민국 국회》는 얼마 전에 아이젠하워에게 보낸 《메쎄지》라는 것에서 《한국 정부는 각하의 방문을 진실로 환영》 한다느니 《파탄된 경제 생활에 허덕이는 한국 국민에게 거대한 고무가 될 것》이니 하며 한참 동안 《폼베야, 폼베야》를 늘어 놓다가 마지막 대목에 가서 《작년에 왔던 각서리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하는 식으로 《파탄된 국민 생활의 안정 향상을 위해서 딸라를 또 주십쇼》하고 동냥을 청했다.

봄이 오면 감탕 속에서 개구리들이 입을 벌리고 전해에 부르던 그 곡조로 울어대듯이

상거지가 달아난 《대한 민국 국회》라는 감탕 속에서 같은 개구리 장타령이 울려 나오는 것은 물론 놀랄 일이 아니다.




이 각서리패들의 《장타령》은 나라를 망하게 하며 백성을 못살게 만드는 《장송곡》이다. 리 승만이 이 첫 곡조를 뗀 그 날부터 남조선은 지옥의 심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굴러 떨어져 갔다.

미제가 준 그 한 딸라 한 딸라가 다름 아닌 기아, 빈궁, 질병, 죽음, 패덕 등 온갖 악독한 병균의 뭉치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사실인즉 《대한 민국 국회》라는 감탕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 기구인 것이요, 그 감탕 속에서 요란스럽게 울어대는 개구리들은 바로 미제가 길러 낸 흉칙스러운 각서리패들인 것이다.

그러니 엄지 떡장구가 도망쳤다고 하여 그 감탕이 남아 있고 그 조무래기 개구리들이 남아 있는 형편에서 그 시끄러운 《장타령》이 그칠 수 있겠는가.

《부정 축재》를 《처리》하겠다고 호통치던 허 정이는 지금 부정 축재자들의 머리 우에 검은 보자기를 씌우기에 디쳐 날뛰고 있다.

미제 《원조》가 준 온갖 악독한 결과가 백일하에 들어 나며 미제 식민지 파쑈 통치의 썩은 등뼈가 몽땅 부러져 달아 나는 것을 한사코 막아 보려는 허 정의 심사는 누구에게도 비밀이 아니다.

하물며 거지 근성으로 중독되였고 미제가 딸라를 멕여 애지중지 길러 낸 허 정이와 같은 각서리가 남아 있는 《과도 정부》나 괴뢰 《국회》에서 《장타령》 곡조가 그칠 수 있겠는가.

허 정이를 비롯한 각서리패들의 시끄러운 《장타령》 곡조가 그칠 날도 멀지 않았다.

남조선 인민들은 그 《감탕》을 뒤엎을 것이다.

그러면 각서리 떼의 《장타령》 뿐만 아니라 《경제 시책》이니, 《국정 쇄신》이니, 《부정 축재자 처리》니 하는 온갖 잡소리도 끝장이 나고 말 것이다.

미제를 몰아 가게 하고 미제의 식민지 통치 기구를 뿌리채 뒤엎은 후에 남조선 온 누리에는 각서리패의 《장타령》 곡조가 아니라 진실로 아름답고 환희에 넘친 인민들의 격양가의 우람찬 곡조가 울려 퍼질 것은 틀림 없다.

## 거지 국회

백 인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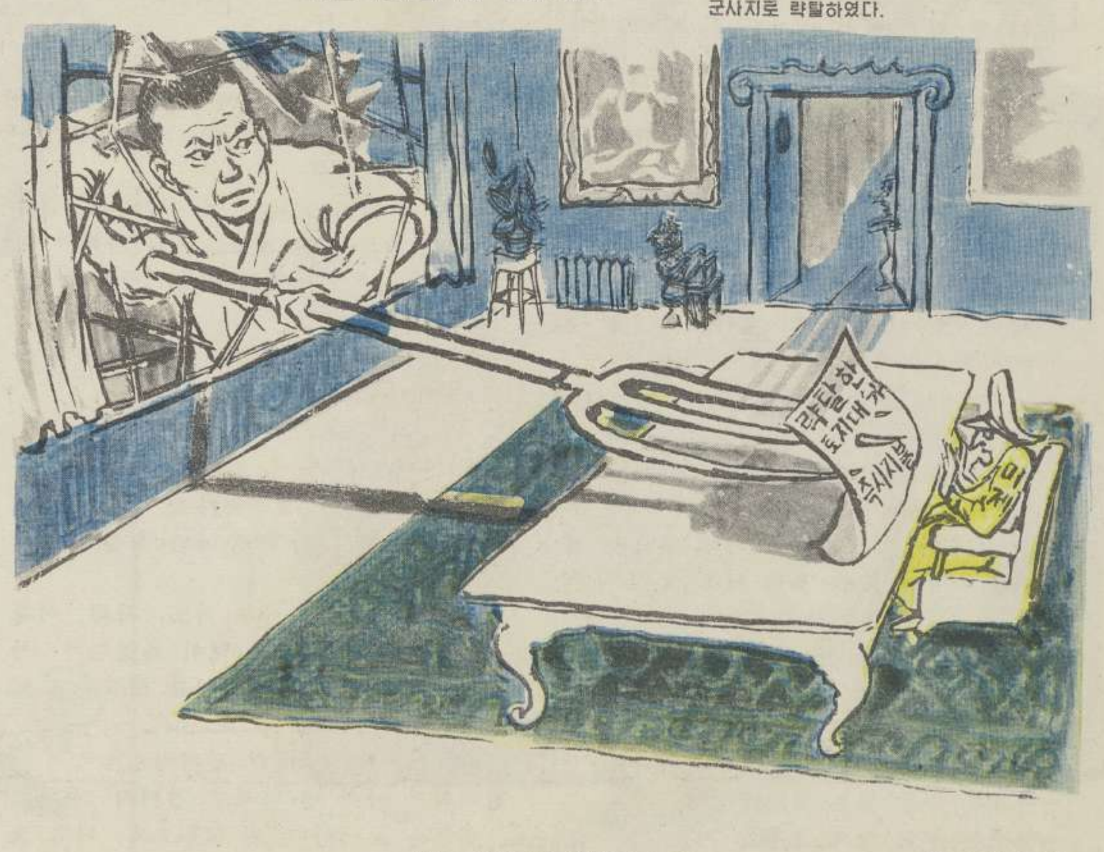
매국노의 소굴인 남조선 <국회>는 지난 6월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메쎄지>에서 주인의 발뿌리를 핥는 삽살개처럼 꼬리를 치면서 먹여 주십쇼 살려 주십쇼 하고 애걸 복걸하였다.

허 정 일당은 부정 축재자들을 계속 비호하고 있는바 만약 그것을 파헤치기 시작한다면 허 정 자신을 비롯하여 괴뢰 지배층 내부에서 하나도 안 걸릴자가 없고 그것만으로써도 괴뢰 통치 기구가 무너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문 룡관 그림

## 먹은 땅을 내 놓아라!

대구시 주변 농민들은 미제 침략군에 빼앗긴 토지의 즉시 보사를 요구하여 궐기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10만 정보 이상에 달하는 농토를 군사지로 략탈하였다.




—맛을 봐야만 알겠느냐?!

박 승히 그림

허 정 왈당은 많은 군사 경찰비 지출에서 초래된 재정의 적자를 충당하려고 지폐를 란발하고 있는 데로부터 물건 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천정 부지의 물'가

원 광수 그림

받았다

김 동철 그림

# 《특수 감방》에서의 음모

오 흥택

—각하 불편하신 일이 없으신지요?

—불편하지 않으면 감방 생활이 흥겹겠느냐.

—허 정 수석·국무 위원 각하로부터 안부를 전달하옵니다.

—안부구 뭐구 빨리 해결해야 할 거 아니냐,

—얼마간만 더 참으셔야 하시겠답니다.

살인 경찰 원흉의 하나로 잡혀 들어간 전 《내무부 장관》 홍 진기와 형무소 간수간에 하는 수작이다.

—여바 간수, 날씨가 더워 오는데 우이스끼 대신 맥주를 드려 보내 주게.

—예, 알겠습니다. 미국측에서 보내 온 맥주가 있사온데

홍 진기는 《감방》 속에서도 제법 호통만 치고 있었다.

얼마 후에 《검사》가 형무소에 나타나 홍 진기와 마주 앉았다.

—맨 주먹을 든 평화적 시위에 총탄을 퍼부은 내막이 속속 드러 나고 있는데 피고는 그래도 부인하겠소?

—흥, 시인하면 어떻구 부인하면 어떻걸 차빈가.

—피고는 법관 앞에서 배'장을 부리는가?

—당신만 법을 아우, 나두 법관이였소.

—피고는 누굴 믿는 배'장이요?

—당신은 누굴 믿고 호통을 치오.

—법에 의해서 심문할 따름이오.

—흥, 법? 대한 민국에서 언제 법대루 문제를 처리해 본 일이 있소?

—피고는 검사에 순종해야 한단 말이요!

—검사? 좋소, 나는 당신의 심문을 거부하오.

검사와 홍 진기와의 《심문》은 이로써 끝나자 다음날 《검찰 총장》이 홍 진기를 찾아왔다.

—장관 나리, 심사가 늦어졌시다. 바빠서…

하고 검사 총장이 말하자

—여보 심사구 뭐구 도대체 이게 무슨 판이요. 검사란 녀석은 웨 그리 건방지게 구오.

—하하하 거야 햇내기니까 법의 권위를 세우느라고 하는 게죠. 근데 사태가 재미 없을 것 같는데 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소.

—재판은 뭐 말라빠진거요. 정 그러면 나두 배'장대루 하겠소

홍 진기는 몹시 화가 난 모양이다.

—이 판에 배'장이구 뭐구 있소, 기왕 이쯤 된 건데 좀 참으셔야죠.

—아니 다 같이 하구두 나만 희생되란 말이요?

—누가 희생시키겠다는 거요, 사회 여론이 자리가 잡히면 의례히 해결될거 아니유 미국측에서도 그만큼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만 하면 고생이 견져지오?

진저리가 나서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겠소. 신문을 보니깐 발포 원흉으로 나를 모라치는데 원래 명령한 사람은…

—쉬이! 그걸 누가 모르오. 명령자야 리승만 박사와 미대사관측이 아니요.

그러니깐 정치가 까다롭고 힘들다는 거 아니요, 기왕 이쯤 됐으니 앞날을 위해서 참으셔야죠.

—앞날을 위해 감방 속에서 썩으란 말이요?

—허어, 감방에 있더니 마음이 약해졌소, 미국측에서 모든 것을 담보하고 있지 않소.

—하여간 좋소. 건방진 검사나 우리편으루 바꿔 주시오. 사람을 범인 취급한단 말이요.

—허허허, 그 사람이 진짜 우리 편이란 말이요.

—뭐요? 그런데 웨 호통을 치는 거요?

—검사는 그만 하면 일등 배우요. 안심하구 기다리요. 불편한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요.

—허 말두마우. 못살겠소. 아사원의 추월이 좀…

—하하하—. 역시 그 노름을 생각허구 있군. 근데 사회의 눈이 있어서 그건 좀 힘들겠는데.

—딱지 붙쳐 잡아 들이면 될 거 아니유. 죄가 심해서 특수 감방에 보낸다구

—하하하, 과연 내무부 장관이군. 그런데 후에 말이 나면 재미 없지 않소.

—그 때야 없애 치우면 되지 않소. 교수대는 어데다 쓰자는 거요.

—각하 수가 잖소. 승락 했소.

이렇게 하여 《특수 감방》에서는 새로운 음모가 꾸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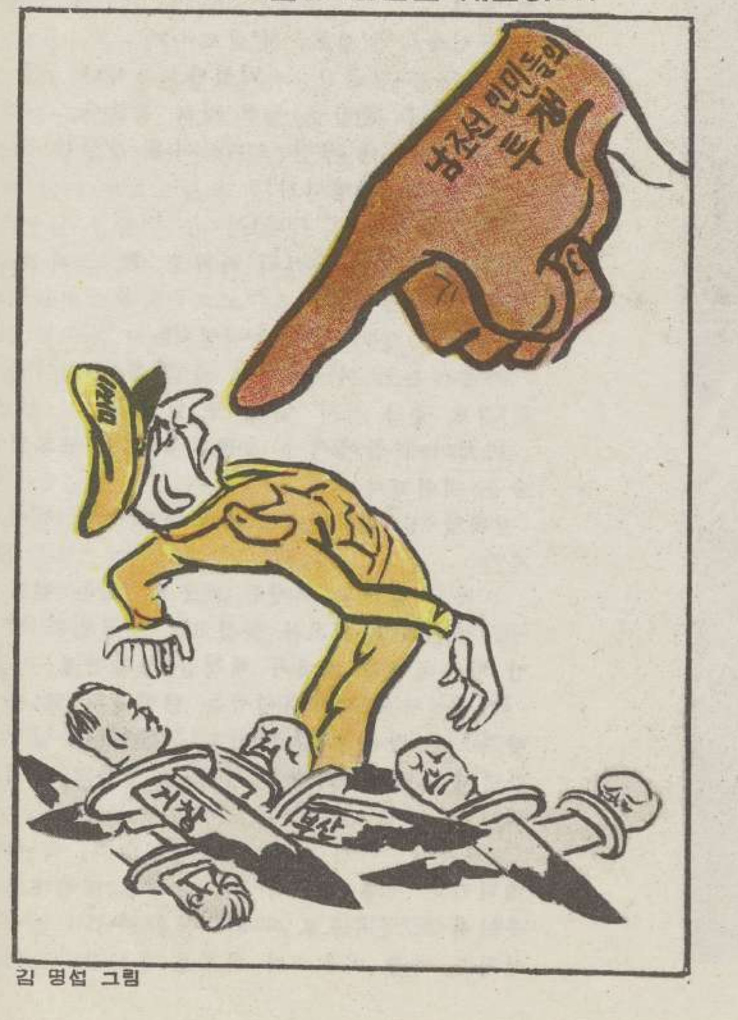
사실은 이렇다

송 시엽 그림

허 정의 정체

백 인균 그림

인간 백정들의 원흉을 처단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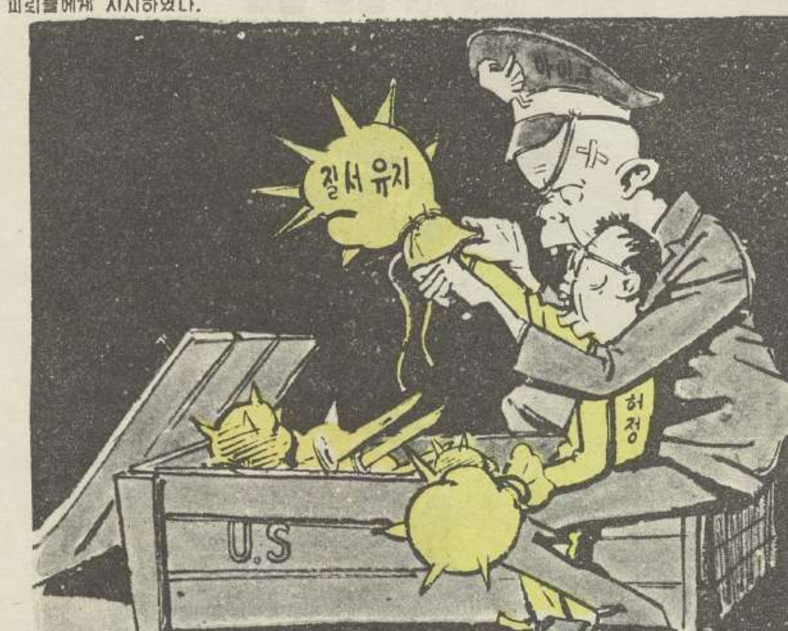

김 명섭 그림

단결된 힘 앞에서

조 명식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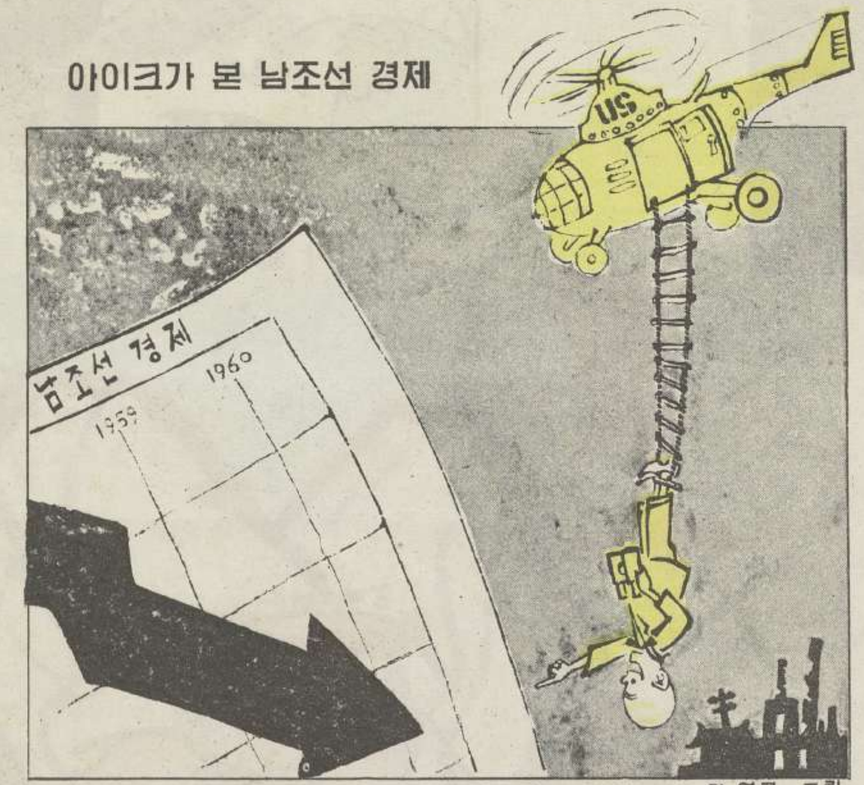
아이젠하워는 남조선에서 마치 《자유》와 《민주주의》가 소생한듯이 떠벌리면서 《질서 유지》 운운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궐기한 인민들의 투쟁을 거세할 것을 괴뢰들에게 지시하였다.

### 아이크의 《선물》




안 창수 그림

### 아이크가 본 남조선 경제




아이크—보라! 남조선 경제는 상승하고 있다.

최 영근 그림

남조선에 기여 들었든 아이젠하워는 《군사력 강화》요, 《집단 안전》이요 하면서 전선 참호속에까지 찾아 가서 미군과 괴뢰군에게 새 전쟁을 선동하였다.

백 인규 그림

# 아이젠하워의 뒤'골목 행각

김 문섭

오끼나와에 도착한 아이젠하워는 더 앉아 있지 못하고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시계를 보니 아직도 체류 시간은 30분도 더 남아 있다. 아메리카의 대통령이란 위신을 생각하여서는 그 30분을 채우고 떠나야 했지만 이곳 군중들의 목소리는 당장 불덩어리라도 쏟아 놓을 듯 숨을 막았다. 그의 번들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흘러 내렸다.

《각하,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망할 백성놈들의 기세는 좀체 갈아 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올지…》

밖에서 뛰여 들어 오면서 공보 비서 해거티는 숨까지 헐떡거리며 말한다.

아이젠하워는 속으로 무릎을 툭 쳤다. 그러나 그것을 겉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남조선을 방문하기 위하여 비행장으로 불이 나게 자동차로 달렸다. 그러나 다이야는 몇바퀴 돌지 못하고 멎었다.

《양키들은 집으로 가라!》

《유—2 비행기를 걷어 가지고 가라!》

《얼마나 오래'동안 오끼나와를 강점할 것인가? 똑바로 말하라!》

이렇게 웨치는 군중들과 프랑가드가 길을 막았던 것이다.

아이젠하워는 어찌할바를 모르고 허둥지둥 했다.

《운전수! 뒤'길로, 뒤'길로…》

해거티는 황급히 소리쳤다. 그러나 군중들은 그들을 붙잡을 듯이 달려 들었다.

《얼마나 오래 동안 오끼나와를 강점할 것인가? 똑 바로 말하라!》

《양키들은 물러 가라!》

아이젠하워는 무서워 바라볼 수 조차 없었다.

《운전수 빨리 뒤'길로…빨리》

자동차는 오끼나와에서 제일 좁고 험악한 뒤'길로 돌아 서지 않을 수 없었다.

비행기에 앉아서야 그들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래일 신문들에는 또 무엇이라구 날 것인가?》

그러지 않아도 세계는 비웃고 있는 판이다. 일본은 방문조차 못했고, 비률빈과 대만 방문에서는 랭대와 배격을 받았다고…

거기에다 오끼나와에서는 인민들의 더 큰 배격으로 방문 예정 시간도 30분이나 앞당기면서도 제 길로가 아니라 뒤'골목으로 빠져 나왔으니…

《해거티! 이게 얼마나 큰 망신인가, 대 아메리카의 대통령이 식민지 백성들의 반대를 못이겨 뒤'골목으로 빠져 나왔으니… 벌써 전과는 나를 비웃으며 세계를 돌아갈 것이다. 자네가 운전수에게 명령하지 않았으면 왜 이런 망신을 하게 되겠는가》

《그거야 대통령 각하께서도 그 길로 가는데 대하여 반대도 안하시고 또 각하의 신변을 생각하여…》

《닥치시오, 내가 그렇게 비겁한 사람인줄 아는가. 앞으로 남한에 가서까지 그런 행동을 하면 용서 없어…》

이렇게 해거티하고라도 호통을 치고나니 그래도 얼마간 마음이 풀리는 듯 하였다. 허 정에게 지시한 것이 있어 남조선에 가서는 얼마든지 큰 길로 활개칠 수 있으리라 믿었기에 더욱 큰 소리를 쳤다.

아이젠하워가 김포 비행장에 내리자 허정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보고하였다.

《분부하신 대로 여기서부터 룡산까지는 헤리콥터를 마련하였고 룡산부터 주한 미국대사관까지는 특제 자동차를 준비하였습니다. 분부하신 대로 1만 2천 명의 군경을 동원하여 서울 거리들에 5 메터 간격으로 진을 치구요. 18일 밤에는 경비 련습도 대대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오라 그날 밤에 철야 검문 검색도 하여 의심할 수 있는 놈은 모주리 체포 구금하였습니다.》

아이젠하워의 얼굴에는 만족의 웃음이 빙그레 돌았다. 그들은 헤리콥터를 타고 룡산으로 온 뒤 거기에서 자동차를 타고 미국대사관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예측과는 달리 저주와 증오로 이글거리는 인민들의 눈초리는 총칼의 숲 속에서도 무섭게 자동차를 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와직근하고 자동차의 거울이 깨여졌다. 뒤따라 《군경》들의 호각 소리가 요란히 울렸다.

《저…저…》

허 정은 답변할 길을 찾느라 애를 쓴다.

아이젠하워 머리'속에는 비률빈이며, 대만이며, 오끼나와에서 당하던 봉변들이 번개 같이 떠오르면서 옷삭 몸서리가 친다. 더구나 이들이 리 승만의 동상을 목 매여 끌고 다녔고 또 맥아더의 동상을 무너뜨리려 하였으며 《맥코노이는 당장 물러 가라》고 웨치며 나선 그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당장 달려 들어 제 목을 지지누를 것만 같았다.

《운전수 뒤'골목으로…, 뒤'골목으로 빨리…》

아이젠하워는 황급히 소리쳤다. 자동차는 뒤'골목으로 빠져 나갔다.

《각하! 왜 큰 길로 안가십니까?》

뒤'골목 고요한 곳에 이르러 해거티는 이렇게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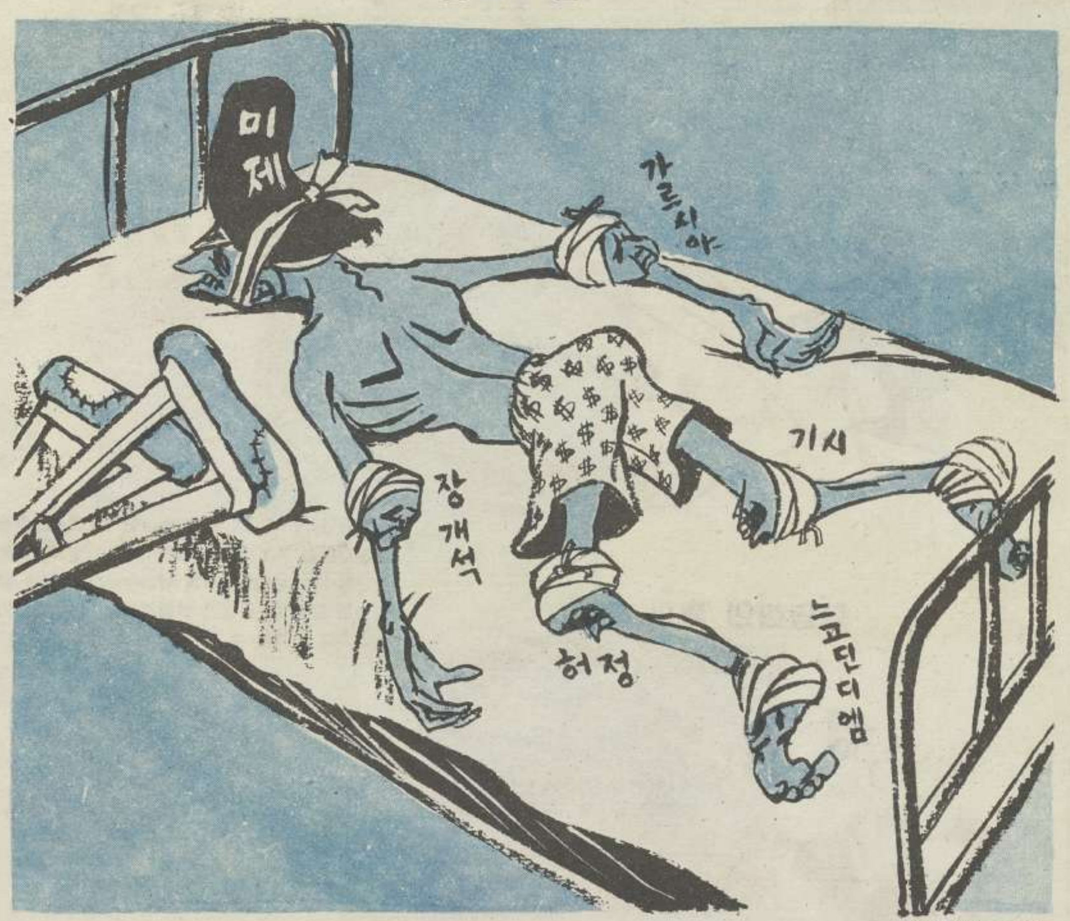
《그 큰 길들은 내가 1952년도에 왔을 때에 다 구경한 거리들이 되여서 이번에는 뒤'골목을 구경하면서 려행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아이젠하워의 번들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흐른다.

《그렇겠습지요》

허 정은 영문도 모르고 아첨의 웃음을 웃었다.

### 관절염 환자




송 용남 그림

### 개구리들의 반공 소동

최 영근 그림

## 《자유 세계》의 진상

(아메리카에서)

### 두 현상

백 인균 그림

미국 강철 회사들 중의 하나인 《유에스스틸》은 로동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여 작년 첫 3 개월 동안에 2억 5천만 딸라에 달하는 순 리윤을 얻었는바 만일 이 리윤을 분배한다면 3만 세대의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다.

### 깽영화의 후과

### 차별 대우

거리에서—도대체 깜둥이는 맘에 안들어.

집에서—오 귀여운 내 깜둥이

### 거미의 활동 무대

## 《기념》 광고

로 철

미국 부르죠아 신문들의 이른바 《아이젠하워 아세아 지역 〈친선〉 방문 출발 기념 특집호》에 실린 여러 회사, 상점들의 광고들 중 가장 《인기》가 있었다는 것을 몇 개 추려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등록 《친선》상표**
**특별 대판매!!**

본 회사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세아 지역 《친선》 방문을 협조하기 위하여 아래의 상품을 특별히 판매함.

1.철갑모—왕년에 닉슨씨가 라틴 아메리카 방문 시에 쌓아 올린 《고귀》한 경험을 100 % 살린 특제품으로서 곯은 닭알, 파일 껍질, 쓰레기 등은 물론 돌멩이, 롱조림 등의 습격도 능히 막아 낼 수 있음.

2. 방독면—최류탄 까스를 능히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산》 군중들의 여하한 웨침 소리도 막는 방음 장치까지 달려 있음.

※ 상기 두 제품을 다 사는 분에게는 써비스로 특제품 고약을 무료로 제공함.

아이렌. 일로스 군수품 상사 백

**대통령 수원들에게**
**회소식!**
**폭동 피해 보험 증권 발행**

본 회사는 《협악》한 공기가 가득찬 아세아 지역에로 《멸사 봉공》의 《대용기》를 발휘하여 떠나시게 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수원 제씨들에게 그들의 사랑하는 안해, 아들 딸들의 무한한 우려와 절실한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특히 《폭동 피해 보험 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이에 광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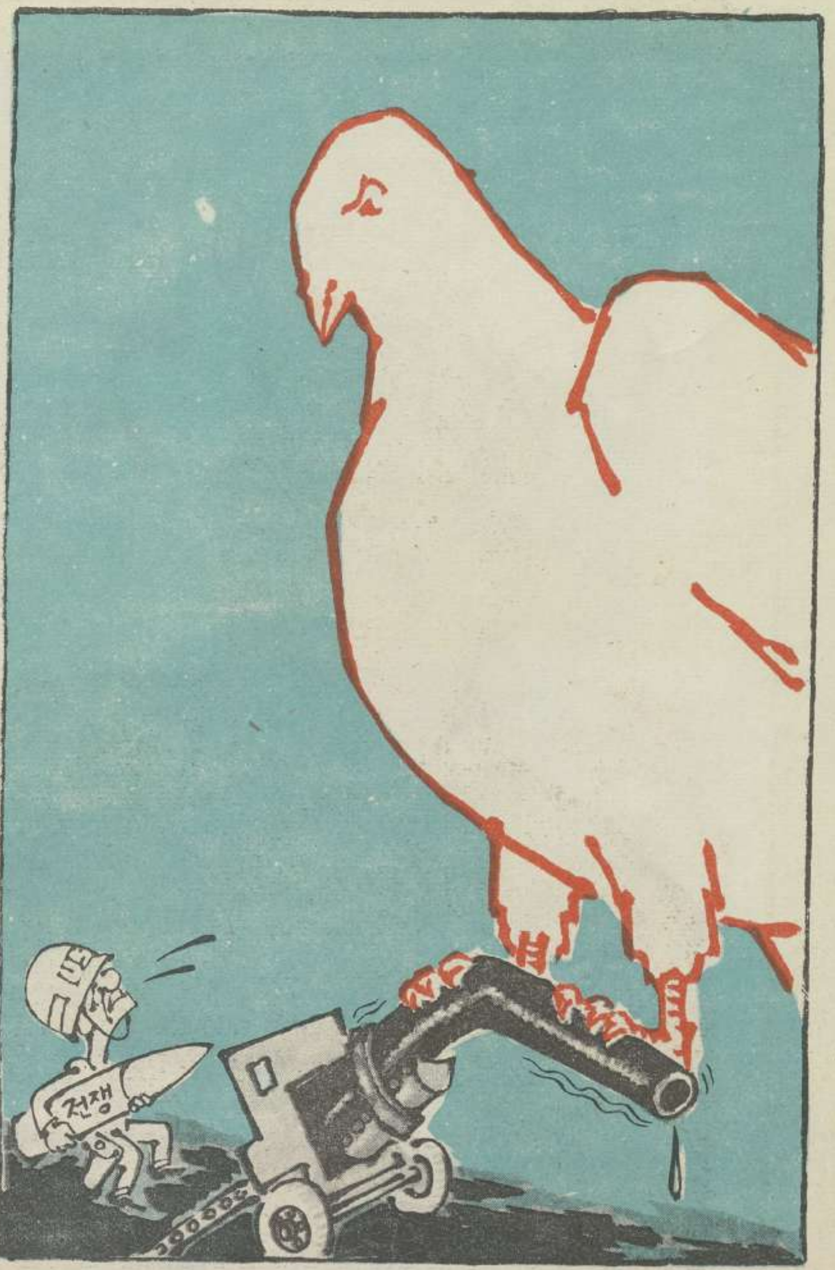
허터 국무 장관도 우리 회사의 《창발성》을 높이 찬양하고 앞으로 이것을 《자유 세계》내 기타 모든 나라의 집정자들에게도 널리 적용시킬 것을 권고하였음.

액면 종류—5천 딸라, 1만 딸라
5만 딸라, 10만 딸라
다 팔리기 전에 어서 사시라!
본 증권은 마니라, 대북, 도교, 서울에서도 판매함.
단 본 보험 회사의 생명 보험 증권 소지자에게는 판매를 거절함.

워싱톤, 쎄이프 생명 보험 회사 백

단합된 힘으로 올가미를 조인다

백 인균 그림




—으악! 평화가 전쟁을 《위협》한다. 최 영근 그림

**수정 보충판**
**『미국 아세아 회화집』**
**(반미 행동 조사 위원회 검열완료)**

현 아세아 정세를 고려하여 비률빈어, 대만어, 일본어, 조선어로 말할 수 있도록 많은 류행 회화를 보충하였음.

—내용 실례—

1. 《날 때리지 마십시오! 나 나 미국 대통령 아닙네다!》
2. 《여보, 허 정! 내 엉덩이 좀 받들어 주시오! 나 저 헬리콥터 타고 이 군중 포위망 빠져 나갈 필요 많이 많이 생겼습네다!》
3. 《세탁소 어데 있습네까 장관? 아까 군중의 구두발에 채워서 내 양복에 발자욱이 많이 많이 묻었습네다. 벌거숭이로 미국에 돌아갈 수 없으니 이 양복 빨리 빨아야겠습니다. 세탁비는 미국 〈원조금〉 중에서 공제하시요…》

※ 부록으로 《아이젠하워의 라틴 아메리카 방문기》가 있음

**선물 안내**

본 선물 상점은 아이젠하워를 따라 비률빈, 대만, 일본, 남조선을 방문하게 되는 백악관 관리, 펜타곤 장교 제씨들을 위하여 그 곳의 미국 추구들에게 줄 선물로 다음과 같은 상품을 준비하였음으로 널리 애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 ○

경관용 곤봉, 권총집, 바'줄, 사형용 전기 의자 및 로케트 《유—2 형》 간첩 비행기 모형과 미국제 로케트 《아틀라스》의 파편.

※ 본 상점은 이상 선물을 몽땅 색종이에 잘 싸서 그 우에 《미국식 민주주의 만세!》라는 상표를 붙여 놓았음.

뉴욕 스터 선물 상점 백

**아세아 지역 방문용**

위스키 《아, 아, 아》
최면제 《푸, 푸, 푸》

특별 매매 개시!!

본 상점은 아픔과 우울증을 푸는데 특효가 있는 것으로서 아세아 지역 《자유 국가》 방문시는 물론, 미국에 돌아 온 후에도 효능이 대단함

※ 단 미국 공민 (특히 관리들)의 체질에게만 맞도록 제조되였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람.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5670
발 행 1960.7.10
(값 40전)

# 교훈을 찾으라!

안 창수 그림.

Пэк 8
ул. Чайковского 19/21
Посольство США
7-12 N8C34

8034
Хвальсаль